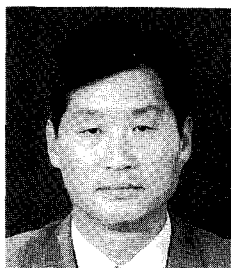


구제역과 대조적인 뉴캐슬병 방역대책



이 준 동

(본회 청주육계분회장/사철농장 대표)

유난히 긴 겨울이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별다른 큰 추위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어느해보다 더 춥고 많은 눈이 내린 기상이변과 질병 등으로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 힘든 겨울이었다. 하지만 3월은 계절적으로 분명히 봄이다. 이 봄과 함께 양계인 모두가 긴 겨울의 터널에서 벗어나 희망차고 활기찬 날들만 지속되길 염원해 본다.

필자는 감히 뉴캐슬병에 대해 글을 쓸 학식도 많은 경험도 없어서 이 글을 쓰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평소의 경험과 생각하고 느낀 점, 그리고 궁금한 점을 쓰고 훌륭한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또 필자와 비슷하게 예방접종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예방접종방법은 급변해 왔다. 지난해 초까지는 1일령 분무백신을 하고 7~8일령 1차 음수백신, 15~17일령 2차 음수백신을 탈지분유를 희석해서 했지만 출하전(28~32일령)에 뉴캐슬병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왔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나중에 확인된 일이지만 권장해 준 백신은 잔류역가가 있을 때는 음수접종으로는 별 효과를 볼 수 없는 백신으로 판명됐다.

그 후 입추때 부터는 부화장에서 분무백신을 해 왔을 경우 1일령 사독겔백신을 접종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매주 역가검사를 의뢰하고 확인받으며 정상 출하할 수 있었다. 그 뒤 부화장에서 분무백신을 하지 않고 입추할 때는 분무백신을 1일령 농장에서 BI으로 하고 7일령 사독겔 백신으로 접종을 했는데 후유증이 심했다.

현재 필자의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지금도 1일령 부화장에서 분무를 했을 경우 7~8일령 음수1차, 14~17일령 음수2차 접종을 하고, 일부 농가는 음수백신을 하지 않고 7~10일령 점안접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종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이 방법이 좋다거나 안심하고 사용

“

명확한 예방접종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캐슬병은 백신과
 차단방역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험실에서나 통하는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

”

해도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지 못하며, 계속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명확한 예방접종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캐슬병은 백신과 차단방역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험실에서나 통하는 공허한 얘기로 들린다.

필자가 볼때, 종계의 관리, 부화장에서의 처리방법, 병아리의 역가 등 많은 일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방접종 방법이 같다면 또 어떤 종류의 백신이 어떤 방법으로 접종할 때 효과가 더 있고 후유증이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등의 이 모든 사실을 농가에서 알지

못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국가에서 뉴캐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는데, 왜 주의보를 발령했는지 안타깝다. 분명 뉴캐슬병은 제1종 법정전염병이므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국가차원에서 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든지, 적극적인 방역에 힘을 기울이든지, 백신 지급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구제역 발생 때에는 온 나라가 방역을 하고 법석을 떨었지만, 그보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 뉴캐슬병은 지금껏 한 것이 예방접종 방법이나 발생건수 등을 적은 종이 한 장 보내는 것이 고작이고, 올해부터 2차분 백신을 농가에 나눠준다고 한 것도 언제 줄 것인지 분명치 않다.

또한 발생 건수도 공공기관의 통계를 믿는 농가가 얼마나 있을까? 살처분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신고하면 불이익만 돌아오는 현실



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신고하길 바라는지 묻고 싶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별일 아닌양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결국 피해가 발생하면 농가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1종 법정 전염병은 국가에서도 같이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선도하고 지도해야 되는 양계협회는 무슨 일을 했고, 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기술연구소 등 공공기관은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교육을 하고, 확인하고, 파악하고 상담했는지 알고 싶다.

백신 1회 공급하던 것을 2회 공급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소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차단 방역을 위해

관계 업소에 공문 몇 번 더 보내고, 소독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농가에 경고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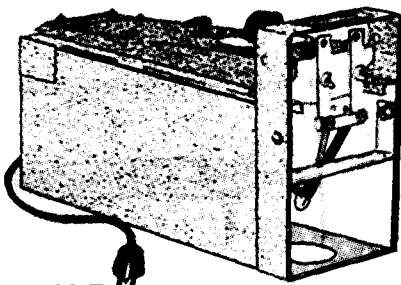
필자가 생각하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선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한 예방접종 방법을 세분해서 가르쳐주고, 차단방역이 중요하다면 소독방법, 소독약 선택법, 동하절기 소독 요령 등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농가에서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어떤 교육을 원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접종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뉴캐슬병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계**

보령산업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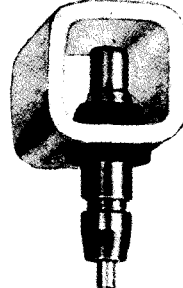
●고품질 ●저렴한 가격 ●국산품 입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넙 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개발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02)461-7887 (주·야)